

압둘자바 “르브론, 증명할 것 없는 선수”

NBA의 레전드 카림 압둘자바가 르브론을 응원했다.

압둘자바는 5일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르브론은 증명할 것이 없는 선수다.”라고 말했다.

르브론이 속한 LA 레이커스는 2023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멤버 너게츠에 0-4 스윕패를 당했다. 이후 르브론이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압둘자바는 이런 르브론에 대해 “올 시즌 르브론과 대부분의 레이커스 선수들이 두 시즌을 겪은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멋진 노력을 선보였다. 아울러 르브론은 증명할 것이 없는 선수다.” 라며 치켜세웠다.

레이커스는 올 시즌 첫 12경기에서 2승 10패를 기록



▲ 지난 2월 NBA 통산 득점 1위에 오른 후 기뻐하는 르브론 제임스. 사진=연합뉴스

했다. 플레이 인 토너먼트를 거쳐 7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멤피스 그리즐리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차례로 꺾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다.

이에 압둘자바는 “레이커스가 좋지 않은 시즌 초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이널에 진출하지는 못했으나 선수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성과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르브론은 지난 2월 7일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의 홈 경기에서 개인통산 3만 8,390점을 기록하며 압둘자바가 갖고 있던 NBA 최다 득점 기록(3만 8,387점)을 갈아치웠다. 당시 압둘자바는 “르브론은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르브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PGA·LIV골프·유럽투어 통합 선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후원을 받는 LIV골프, 유럽 PGA투어가 합병을 선언했다.

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LIV골프, 유럽 PGA투어를 관리하는 DP월드투어는 전날 통합을 위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IV골프 소속 선수들도 2023년 시즌 이후 미국과 유럽 대회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로써 2022년 6월 출범한 LIV골프로 이적한 선수들의 출전 대회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이들은 2023년 시즌 이후 LIV골프 소속 선수들이 미국과 유럽 골프투어 회원자격을 다시 신청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LIV골프를 지원했던 사우디 국부펀드는 새로운 골프 통합 법인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골프투어 단체 간에 계류 중인 모든 소송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PGA투어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는 “지난 2년간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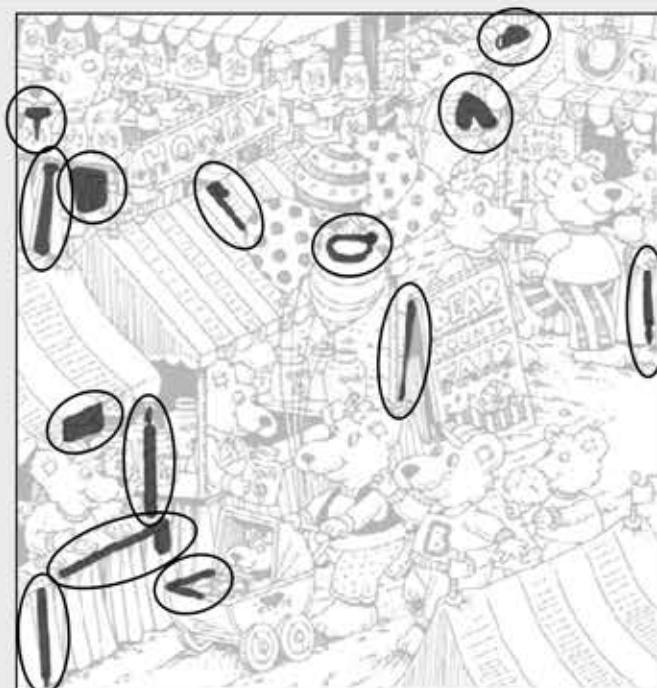


▲ 지난 5월 LIV골프 워싱턴 D.C. 토너먼트에서 팀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축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골프 경기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프로골프에서 최고의 경쟁을 촉진하고 골프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IV골프로 이적한 유명 골프선수로는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브룩스 켈카, 캐머런 스미스 등이 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챗GPT, 역대 최고 여자 스포츠 선수는 윌리엄스



▲ 2017년 호주 오픈 대회 여자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세레나 윌리엄스. 사진=연합뉴스

‘테니스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곱은 역대 최고의 여자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다.

NBC스포츠는 4일 “챗GPT에 역대 최고의 여자 선수를 물어본 결과 윌리엄스가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스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3 차례 우승해 이 부문 역대 2위 기록을 보유한 선수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만 따지면 남녀를 통틀어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 보유자다. 1999년 US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고, 지난 해 은퇴할 때까지 20년 넘게 세계 정상급 선수로 맹위를 떨쳤다.

챗GPT가 뽑은 역대 여자 선수 2위는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미국)였다. 바일스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관왕에 올랐고 세계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19개나 쓸어 담았다.

3위는 육상 선수 재키 조이너 커시(미국)로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7종 경기와 멀리뛰기,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7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위~10위는 축구 선수 마르타(브라질),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미국), 앤리슨 펠릭스(육상),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육상·골프), 론다 로우시(격투기),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육상·이상 미국), 슈테파니 그라프(테니스·독일)가 차례로 선정됐다.

숫자퍼즐 정답

2	9	4	7	1	5	8	3	6
7	1	8	9	6	3	4	2	5
3	5	6	2	4	8	7	9	1
8	2	7	1	5	4	3	6	9
4	3	5	6	9	2	1	7	8
9	6	1	3	8	7	2	5	4
5	7	9	4	2	1	6	8	3
6	4	2	8	3	9	5	1	7
1	8	3	5	7	6	9	4	2